기업 경영 정보

□ 일본 기업의 테러 대응형 수출 관리[1)]

- **9·11 미국 동시 테러를 계기로 일본 기업들은 수출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**
  -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대량 파괴 병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수출 심사제도 도입 방침을 제안함
  - 이에 따라, 일본의 상사, 기계, 전자전기 메이커들은 신제도의 사내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
  - 미쓰비시상사는 포괄적인 수출 감사를 위해 '안전 보장 무역 관리위원회'를 신설하였고, 해외 부임자에 한정됐던 사내 수출 관리 연수를 국내 인원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사원들의 수출관리 의식개혁에 나섬
  - 닛쇼이와이(日商岩井)도 법령 준수(compliance) 및 위험 관리를 일괄 책임지는 상설 위원회를 신설하고, 사안별 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수출관리 체제 강화를 담당하게 함

□ 철강 과잉 설비에 대한 미국의 입장[2)]

- **철강 산업의 과잉 설비 투자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일본, 아시아, 중남미 등 철강 주요 생산국에 협력을 요청함**
  - 최근 美상무성의 통상대표부(USTR) 담당자는 철강산업 과잉 설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각국에 파견됨
  - 미국 정부는 12월 중순에 열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철강 협의까지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임
  -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및 해외 철

1) 日本經濟新聞(2001년 11월 25일자)
2) 日本經濟新聞(2001년 11월 25일자)

강 수입의 확대로 업계 3위인 베들레햄 스틸이 파산 신청을 했고, 이에 철강 업계의 수익 악화가 전반적으로 심각해졌기 때문임

· 미국 정부는 갑작스럽게 수입 제한 등으로 국내 업계 구제책을 모색하는 한편, 문제의 주원인을 국제적인 설비 과잉 투자로 진단하고 OECD에서 과잉 설비 축소를 주장할 것으로 나타남

· 현재, 미국은 자국 내 철강 업체들의 노후설비 폐기와 인력 감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해외 생산국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

□ 일본 민간 여객기 개발 추진[3)]

- **경제산업성과 미쓰비시중공업, 가와사키중공업은 100석 규모의 민간 여객기를 개발할 계획임**

· 대도시와 중소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소형 여객기 시장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미국의 보잉사도 소형 여객기 시장에서 향후 25년간 약 3,000대의 추가 수요를 예상하고 있음

· 일본의 경산성과 항공기 업계는 현재 방위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운송·초계기의 시스템을 전용할 때, 민간 여객기 개발에 소요되는 약 2,000억 엔의 개발비를 1/4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

· 또한, 방위청도 동일 공장 내에서 민간 여객기를 함께 개발함으로써 약 100대 가량의 운송·초계기 생산에 있어서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함

· 경제산업성은 2010년에 여객기 실용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완성품에 대해서는 해외 항공 업체에 판매할 계획인데, 이것은 방위 장비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(임종욱 : frontier@hri.co.kr ☎ 031-288-7348)

3) 日本經濟新聞(2001년 11월 24일자)